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15
APR 29 2022

발간년월 2022년 4월 29일(통권 제215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중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시아 제재로 Arctic LNG-2 프로젝트 차질
- 러시아, 북극항로 운송위기 해법 찾기 나선다.
- 러 국영조선사, 조선 기자재 수입대체 본격화
- 러, 북극 LNG 선적 서비스 루블화 결제 강제
- 러시아, 국내 어선 수리능력 개선 사업에 착수
- 서방의 제재와 관련한 러시아 정부 대응 현황
- 서방 금융기관이 본 2022~23 러 경제성장률
- 아제르~이란 철도 연결 사업, 올해 안에 완공

주요 통계

- 2022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 * 러시아 극동지역 세관 홈페이지 접속 불가로 업데이트하지 못하였습니다.
세관의 홈페이지가 복구되는대로 게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요 동향



러시아 제재로 Arctic LNG-2 프로젝트 차질

■ EU의 제재가 러시아 Arctic LNG-2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a)}

- 최근 유럽연합(EU)의 5차 대러 제재 조치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등을 포함하여 고성능 전자 기기, 소프트웨어, 수송 장비 등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이 추가로 금지하고 있음. 금액으로는 약 100억 유로(약 13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정됨
- 이번 제재가 러시아 Arctic LNG-2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기단 반도에 있는 Arctic LNG-2 플랜트는 2023년부터 3개 라인 중 첫 번째 라인에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제재로 가스 액화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 이전이 금지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해외 기술의존율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해외 기술 없이는 개발에서 생산 및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일부 EU 국가는 6차 러시아 제재안을 추진 중이나 러시아 에너지 공급 의존도가 높아 의견의 합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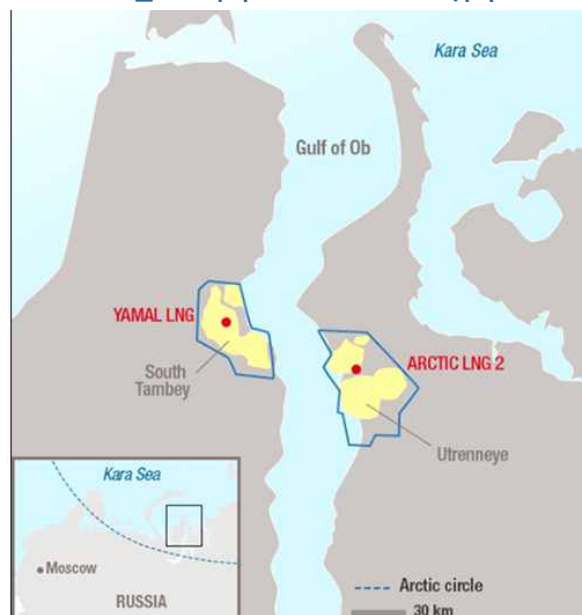
-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독일과 헝가리가 제재 대열 이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유럽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
- 앞서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올해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을 통해 3,210억 달러(약 396조 원)를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는 지난해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한 수치로 러시아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400억 달러(약 29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그러나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게 되면 러시아의 타격은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임. 실제 최근 러시아의 석유 생산과 수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달 러시아 원유 생산량이 예상치보다 4분 1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음
- 러시아의 석유·천연가스 수출이 막힐 경우 러시아 경제는 더 악화될 수 있으며, 서방의 에너지 금수 조치가 실행될 경우 러시아 경제는 20% 이상 위축될 수 있다고 추정함

■ 푸틴은 서방의 제재에 강력한 맞대응을 시사하며 북극에 대한 투자는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a)}

- 서방의 고강도 제재로 에너지 자원 수출길이 막히자 푸틴은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언급하며, 단계적으로 러시아 동부와 남부의 신흥시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함
- 여기서 동남부는 동북아와 동남아 시장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경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을 주요 공급처로 눈을 돌리겠다는 계획으로 보임
- 이를 입증하듯 인도는 최근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원유와 석탄을 대거 사들이고 있으며, 일본 산업부 장관은 Arctic LNG-2 프로젝트 제재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음

그림. 노바텍 Arctic LNG-2 위치



자료: TotalEnergies SE

이슬기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 <https://www.naturalgasintel.com/technip-sees-exceptional-change-in-global-lng-markets-russias-arctic-lng-2-impacted/>(2022.4.26. 검색)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4-22/u-s-eu-discuss-options-to-wean-europe-from-russian-oil-imports>(2022.4.26. 검색)
-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japan-is-not-considering-suspending-arctic-lng-2-project-industry-min-says-2022-03-30/>(2022.4.26. 검색)

러시아, 북극항로 운송 위기 해법 찾기 나선다.

■ 푸틴,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로 북극 운송 및 물류사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a)}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북극개발회의에서 “비우호적인 국가들의 행동으로 일련의 운송 및 물류 사슬이 끊어졌다”고 언급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대체 솔루션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모든 자원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푸틴의 이러한 정책 메시지는 석유 및 가스개발에 대한 후속회의에서도 이어졌음. 푸틴은 “국제 제재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수출을 위한 물류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며 북극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음
- 러시아 중앙은행 의장도 새로운 제재의 가장 큰 타격으로 물류문제를 강조했음. 이제는 러시아 기업이 생산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새로운 물류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 국제 제재가 러시아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지금 기반시설이 부족해 일부 선박에 의존하고 있는 북극은 더욱 심각한 실정임^{a)}

- 북극은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의 최우선 국가 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이 지역 전역에서 다수의 주요 산업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음
- 그동안 해외에서 제조된 대형 산업 모듈 및 부품의 특별 배송은 해외 업체가 수행했으며, 이 지역의 원자재 수출 운송 역시 해외 해운 기업이 수행해 오고 있음
- 에너지 개발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과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배송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푸틴은 “북극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함

■ 푸틴, 국제제재와 북극의 해빙 등을 고려해 북극항로의 새로운 법률 제정 지시^{b)}

- 이 같은 법률 제정 촉구에는 2021년에 발생한 운송대란과도 관련이 있음. 2021년 당시 북극 얼음 상태가 좋지 않아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운송에 55일이 걸렸으며, 러시아 정부의 목표인 연중 운항 추진에도 예상치 못한 해빙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 아직 북극항로 운송과 관련한 새로운 법 제정에 대해 구체화된 계획은 없지만 2030년까지

연간 2억톤 물동량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극항로 전 구간에서 안전한 연중 항행이 가능하도록 쇄빙선 지원에 대한 요건들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러시아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올해 핵 추진 컨테이너선인 세브모르푸트호가 정기적으로 북극항로를 운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림.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세브모르푸트(Sevmorput)호’



자료: 캄차카 주정부

이슬기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a) <https://www.arctictoday.com/a-transport-crisis-looms-in-the-russian-arctic/>(2022.4.26. 검색)

러 국영조선소, 조선 기자재 수입대체 본격화

■ USC, 선박 장비 수입 대체화 조기 실현을 위해 자국 제조업체들과 협력 밝혀^{a)}

- 러시아 국영조선소인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USC)는 3월 12일 전체 선박 장비의 수입 대체화 조기 실현을 위해 자국 제조업체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
- 알렉세이 라흐마노프(Aleksey Rakhmanov) USC 사장은 데니스 만투로프(Denis Manturov)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재한 민간 조선업 발전회의에서 러시아 조선업계의 이같은 수입대체화 방안을 언급함
- 앞서 3월 11일 라흐마노프 사장은 USC 직원들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크림반도 사태로 대러 제재가 가해진 2014년도부터 러시아의 조선기자재 수입대체화 실현을 위해 이미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가 방위에 필수적인 전함 건조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산 장비 의존도가 '제로(매우 낮은 상태)'에 가깝다고 덧붙임
- USC에 따르면, 민간 조선 분야의 수입대체화가 8년 동안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체계를 다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선박에 엔진, 앵커 및 계류장비, 조향장치 및 기타 장비를 공급하는 자국 제조기업의 능력을 고려해 선박을 설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입 대체화에 대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밝힘
- USC는 또한 자국 기자재 제조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가운데, 이미 100개 이상의 러시아 선도 제조기업들을 선정해 이들 기업에 외국 모델과 유사한 러시아 선박 개발 비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짐

전명수 교수,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서비스대

(msjeon1976@gmail.com)

러, 북극 LNG 선적 서비스 루블화 결제 강제

그림. 러시아 북극권에서 생산된 LNG 선적 장면



자료: <http://morvesti.ru/news/1679/94934/>

■ 러시아 북극권 LNG 선적 및 양하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루블화 결제법 채택^{a)}

-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회의를 통해 외국 기업이 러시아 북극지역에서 생산된 액화천연가스(LNG) 환적단지에서 LNG 선적, 양하 및 저장을 위한 항만 서비스 이용 시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법을 채택함
- 법률 내용에 따르면, LNG 해상 환적단지 건설 사업들은 LNG 프로젝트들의 주주인 외국 기업체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외화 투자를 통해 추진되는 바, 이 같은 투자 프로젝트들의 투자 회수 기간 동안에는 외화로 서비스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나 결제는 오직 루블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임
- 이 같은 법률 제정은 LNG 프로젝트 이행 시 외환 시장 변동성과 관련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음
- 또한, 이 법률은 러시아 인프라에 포함되는 LNG 환적단지 건설 프로젝트 참여 민간 투자기업들의 의무 불이행 위험을 제거하는 데 제정 목적이 있음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발레리아 샤페로바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morvesti.ru/news/1679/94934/> (2022.4.25. 검색)

러시아, 국내 어선 수리능력 개선 사업에 착수

그림. 러시아 선박 수리 조선소 전경



자료: <http://www.morvesti.ru/news/1679/94949/>

■ 러 연방어업청장, 러 국내 어선 기술 및 수리 서비스를 위한 환경 조성 필요성 언급^{a)}

- 일리야 셰스타코프(Ilya Shestakov) 러시아 연방어업청장은 관련 회의를 주재하여, 어선을 수리할 장소, 수리 방법 및 수리 주체 등을 선정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연방어업청은 이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있고, 이와 연계하여 산업통상부로 전달할 기술 과제를 만드는 것이 연방어업청의 과제라고 강조함
- 아울러, 셰스타코프 청장은 어민들이 러시아 항만 노선들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등 이 같은 문제는 러시아 북부 해협에서도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언급함

■ 러 산업통상부, 전략 개편을 통한 선박 수리 능력 증대 계획^{a)}

- 현재 러 산업통상부는 '2035 조선 산업 발전 전략' 개편을 통해 선박 수리 능력을 4배 가량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러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서는 57개 기관이 선박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연방어업청은 가까운 시일 내로 △선박 수리 작업비를 낮추고, △어민들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제안 조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 선박 수리 부문에서의 부가가치세 면제, △선박 장비 및 부품 수입 통관 절차 완화 및 기타 가능한 국가 지원 조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
- 러시아 어민들은 정부기관의 작업 계획을 반기며, △선박수리조합 설립, △선박수리시설 설비를 위한 투자 지원 필요성, △인력 교육 및 유치 등을 제안함
- 이처럼 러시아 연방어업청과 산업통상부는 어촌계와 함께 경쟁력 있는 선박 수리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설비 건설사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3~4년 동안의 수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임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발레리아 샤페로바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서방의 제재와 관련한 러시아 정부 대응 현황

■ 러 총리, 병행수입 합법화 조치 승인^{a)}

- 지난 3월 30일 러시아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국무총리는 특정 품목에 대한 병행수입 허가문서에 서명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에서 구체적인 병행수입 품목을 발표함
- 미슈스틴 총리는 서방의 대러 제재 국면에서 러시아 경제 안정화를 논의하는 정부위원회 회의에서 병행수입을 허가한 이유로 대체 경로를 통한 원본 상품의 원활한 공급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은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 서비스 제공 및 관세-통과 절차 준수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병행수입 허용으로 인한 러시아 기업간의 적극적인 경쟁으로 제품 소매가격 하락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임
- ‘병행수입’은 독점 수입권을 소유한 공식 수입상이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함

■ 러, 6개월 동안 주요수입물자 관세 면제^{b)}

-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경제제재 압력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 안정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앞으로 6개월 간 중요 수입물자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을 시행키로 함
- 미하일 미슈스틴 국무총리는 러시아 경제 안정을 주제로 개최된 정부위원회 상임위원회의에서 주요수입물자 목록을 작성해 통관을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관세를 면제하며, 반덤핑 관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의 대표적인 경제전문 일간지인 베도모스티(Vedomosti)가 정부 관계자를 통하여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목록에는 채소 및 곡물 완제품, 유아식 첨가제(유청·효소·비타민·증점제 등), 제약용 상품(유기농 화합물·의약품), 식물-금속 제품(일부 압연제품·합금), 건축 자재 생산원료(분필·점토·시멘트 첨가제), 항공 운송용 예비부품(엔진·레이더 장비) 등이 포함됨

■ 러시아, 제조업 분야 수입대체에 박차^{c)}

- 서방의 대러 제재로 미국·유럽산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산업들의 수입대체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러시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역시 러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수입대체 역량 증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러시아 지방에 위치한 기업들은 지역정부의 수입대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면서 제재로 인한 위기 국면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신규 파트너들을 모색 중인바, 지방 정부별 지원 내용 및 지방 기업의 대러 제재 대응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크라스노다르 주: 지역 기업들이 유망한 수입대체화 프로젝트 제안 시 최대 2억 루블(약 2천만 달러)을 연이율 0.1%로 지원
 - 바시키르 공화국: 지역 기업들을 장비-부품-원자재 부문 신규 공급자와 연결시켜주는 특별 수입 지원 센터를 설치해 운영
 - 쿠반 시: 지역 산업정책 당국 및 지역 개발기금과 협력하여 최대 5년 간 수입대체화를 추진하는 역내 기업들에 최대 20%까지 프로젝트 재원 조달
 - 타타르스탄 공화국: 배터리 제조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배터리용 필름을 프랑스에서 수입해왔으나, 현재 러 정부에 수입대체 프로젝트를 신청했으며, 기타 장비는 터키에서 수입하는 방향으로 대응 중
 - 노보쿠즈네츠크 시: 공작기계 생산기업은 지역 주요 탄광 개발에 필요한 장비들의 현대화를 통하여 수입품보다 경쟁력 있는 국산품 개발 작업에 착수
 - 알타이 시 및 툴라 주: 트랙터용 타이어 제조공장(알타이 시), 튜브형 파이프 공장(툴라 주)은 서방의 제재로 인하여, 미국·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제품들의 완전한 국산화에 성공
- 노트북, 차량엔진,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러시아 현지 기업들이 정부의 수입대체 산업에 보조를 맞춰서 제재 대응 국산화 및 신규 공급처 모색 중에 있음

전명수 교수,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서비스대
(msjeon1976@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www.m24.ru/news/vlast/30032022/446144>(2022.4.26. 검색)
- b) https://www.alta.ru/external_news/87998/(2022.4.26. 검색)
- c) <https://rg.ru/2022/03/28/reg-ufo/k-vyrodu-na-rynok-podgotovili-rossijskie-noutbuki-i-dvigateli.html>(2022.4.26. 검색)

서방 금융기관이 본 2022~23 러 경제성장률

■ 러 중앙은행-서방 금융기관 간 전망치에 이견^{a)}

- 서방 금융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22~2023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함
- 이번에 유럽 금융기관이 발표한 수치는 러시아 중앙은행 전망과 비교할 때 경제성장률은 다소 낙관적으로 예측한 반면, 물가상승률은 비관적으로 예측함
- 러 중앙은행 2022~23년 러시아 거시경제 전망은 아래와 같음:
 - 2022년도: GDP -8%, 인플레이션 20%, 환율 1 USD = 110 RUB
 - 2023년도: GDP +1%, 인플레이션 8%, 환율 1 USD = 118 RUB
- 반면 주요 서방 금융기관의 2022~23년 러시아 거시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음:
 - Allianz : 2022년 GDP -2%, 2023년 GDP -2.5%
 - Standard Chartered : 2022년 GDP -2.2%, 2023년 GDP 0%
 - 폴란드 상공회의소: 2022년 GDP -10.4%, 2023년 GDP -9.2%
- 위 3개 기관을 포함 다수의 서방 금융기관들은 2022년도 러시아 GDP 성장률을 -2~-7%로 예측하여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남. 반면 △인플레이션 약 22~28%, △환율 1 달러 = 122.4~124.8 루블로 예측하며 다소 비관적인 전망치를 내놓기도 함
- 러시아 자국 경제 일간지 ‘코메르산트(Kommersant)’는 이번 서방 금융기관들이 러시아 경제성장률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앞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21년도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실제보다 비관적으로 전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논평함

전명수 교수, 블라디보스토크 국립경제서비스대

(msjeon1976@gmail.com)

아제르~이란 철도 연결 사업 올해 안에 완공^{a)}

그림. 남북교통회랑 중 이란~아제르바이잔 구간(붉은색)



자료: <http://old.xalqqazeti.com/en/news/economy/17378>

■ 남북교통회랑의 아스타라~라슈트 철도연결사업 공사비 배정

- 북유럽~러시아~이란~인도를 잇는 남북 교통회랑(North-South Transport Corridor)의 주요 연결 구간 아스타라(Astara, 아제르바이잔)~라슈트(Rasht, 이란) 구간의 건설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 압바스 카티비(Abbas Khatibi) 이란 도로도시개발부 차관은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이 길란(Gilan) 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철도 건설사업 점검 및 지속을 위해 2,1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연설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자금 규모는 올해 안에 철도 완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 길란 주에 위치한 이란 라슈트(Rasht)~아제르바이잔 아스타라(Astara) 구간은 남북교통 회랑에서 이란의 핵심 구간인 카즈빈~라슈트(Qazvin-Rasht)의 연장 노선임. 해당 철도선은 페르시아만 반다르아바스(Bandar Abbas)항과 오만만의 차바하르(Chabahar)항까지 연결되었으며, 회랑 사업 참여국가들은 상품 수출입 및 경유를 통한 운송수익을 누릴 수 있음

■ 남북교통회랑, 대러 제재로 러시아 물류 문제 해결책으로 부상

- 남북교통회랑은 유럽~아시아 간 운송되는 화물들을 기존의 다른 노선 보다 최대 20일 일찍

- 루슬란 다비도프(Ruslan Davydov) 러시아 연방관세국 부국장은,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가맹국 및 인접국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방의 대러제재를 우회하는 물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통계



표. 2022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1/2022 증감율**
극동지역	11.4(-1.3%)	6.8(+4.8%)	18.2	+0.9%
북극해	1.3(-12.9%)	6.3(+11.0%)	7.6	+4.3%
발트해	6.8(-11.3%)	11.8(+13.9%)	18.6	+2.3%
아조프-흑해	8.2(+2.9%)	10.5(+2.7%)	18.7	+0.3%
카스피해	0.2(-12.9%)	0.2(-44.6%)	0.4	-32.8%
합계	27.9(-5.5%)	64.4(+7.3%)	63.5	+1.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25191/>(2022.3.4.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26442/>(2022.3.24. 검색)

표.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488,113.1	58,574.3	2,160.9	3,514.4	490,274	62,088.7
25-27	광물 제품	631,154.4	24,174.4	40,838	53,606.2	671,992.3	77,780.5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497,367.4	20,609.1	511	0.1	497,878.4	20,609.2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4,374	79,626.6	1,178.4	870.8	5,552.4	80,497.6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8.6	2,080.9	9.1	200.9	17.7	2,281.8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0,615	10,273.9	415	269.5	91,030	10,543.4
50-67	섬유, 섬유제 품 및 신발	399.6	48,443.3	65.7	1,446.8	465.2	49,890.1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56,410.9	80,556.7	2,000.8	5,604.8	58,411.6	86,161.4
84-90	기계류	112,094.9	564,415.5	6,905.6	6,888.9	119,000.5	571,304.3
68-71, 91-97	기타	313,063.1	63,036.7	47,434.9	498.9	360,498	63,535.7
	합계	1,696,233.6	931,182.4	101,008.4	72,901.3	1,797,241.9	1,004,083.7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

표.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02	냉장수산물	0	0	-	-	-	-	-	-	0	0	-	-
0303	냉동수산물	98,846	233,521.7	1,005	3,244.7	19	24.2	-	-	98,865	233,545.9	1,005	3,244.7
03031	연어	11,304	48,018	-	-	0	0	-	-	11,304	48,018	-	-
030331	광어	541	4,466.6	-	-	-	-	-	-	541	4,466.6	-	-
030332	가자미	677	600.6	-	-	0	0	-	-	677	600.6	-	-
030339	기타 넙치류	619	493.2	-	-	0	0	-	-	619	493.2	-	-
030351	청어	12,992	3,628.8	-	-	0	0	-	-	12,992	3,628.8	-	-
030363	대구	5,426	17,870.4	-	-	0	0	-	-	5,426	17,870.4	-	-
03036 70000	명태	45,483	48,269	-	-	19	24.2	-	-	45,502	48,293.2	-	-
03038 93	농어	0	0	-	-	-	-	-	-	0	0	-	-
030391	알류	3,548	97,869.6	-	-	0	0	-	-	3,548	97,869.6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531	986.9	-	-	-	-	-	-	531	986.9	-	-
0304	생선 필레	3,720	11,982.8	48	189	0	0	-	-	3,720	11,982.9	48	189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0.2	1.9	46	274	-	-	-	-	0.2	1.9	46	274
0306	갑각류	5,696	198,497.2	79	575.8	-	-	-	-	5,696	198,497.2	79	575.8
030614, 030633, 030693	게	5,244	190,837.8	-	-	-	-	-	-	5,244	190,837.8	-	-
0307	조개류	4,768	14,594.5	-	-	0	2	-	-	4,768	14,596.6	-	-
03072	가리비	271	496.4	-	-	-	-	-	-	271	496.4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4,041.4	11,028.2	82	441.9	0	0	-	-	4,041.4	11,028.2	82	441.9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1,667	4,167.9	-	-	-	-	-	-	1,667	4,167.9	-	-
03081	해삼	487	1,227.9	-	-	-	-	-	-	487	1,227.9	-	-
03082	성게	993	2,891.7	-	-	-	-	-	-	993	2,891.7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